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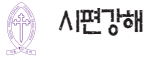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의와 화평이 입 맞출 때

(시편 85:1-1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에게 전달되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시인은 지나간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 은총'과 또한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족적, 국가적, 교회적, 가정적으로 받은 구원과 개인이 받은 사죄의 은총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죄와 구원을 감사한 시인은 공허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는 이상적 사회를 바라보면서 구원과 영광, 사랑과 진리, 의와 평화가 만나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편은 낙심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시므로 국가적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였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1. 과거의 은혜를 숙고하라

좌절과 낙심을 이기는 출발점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행적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1절). 주님은 주의 땅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땅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은혜를 바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고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2. 회복을 위한 구체적 기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항상 현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의 체험을 현재로 전환하며 현재의 위기와 시련을 말합니다(4-7절).

① ‘우리를 돌이키소서’ (4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쳐달라는 것입니다.

②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6절). 시인은 현재 당하는 재앙을

죽음으로 보고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하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한 성경적 설교와 열렬한 기도와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프로그램으로 부흥됩니다.

③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7절).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

3.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절망의 늪에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 시인은 이제 대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8-9절).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를 그치시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조차 아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아야 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1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던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가 있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에게 전달되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속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화평이 입 맞추려면 우리에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이상적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무지개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된다

3월 17일(월)부터 - 원서접수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산하에 어린이 합창단(Rainbow Children's Choir)이 창단된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자라나는 새싹들로 하여금 기독교 문화 창달의 기수가 되게 하고 세속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는 진원지를 삼고자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무지개 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한다.

합창단원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원서접수는 3월 17일(월)부터 3월 21일(금)까지 사무국에서 받는다. 모집인원은 30~40명이며 3월 28일(금) 오후 5시부터 공개 선발한다. 연습은 주 2회(월, 금) 오후 5시부터 2시간씩 갖는다.

무지개 합창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어린이 합창단이 되어 국내외 연주회를 갖게 되며 감독으로 이영조

집사, 지휘는 강영모 선생이 맡는다. 자문위원으로 나영수 교수(국립합창단 지휘자) 김명엽 교수(연세대 교수, 전 국립합창단 지휘자), 원학연 교수(서울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박신화 교수(인산시립 합창단 지휘자, 이대교수) 등이 맡고 이들이 객원 지휘자로도 초청된다.

지휘자 강영모 선생은 연세대 및 동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인천시립 영 코랄'을 18년간 지휘하여 각종 대회에서 대통령상, 대상, 금메달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분을 도울 부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으로 조직된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에 이미 초청을 받고 있다.

- 수련회 -

제 1,2 스테반회 2월 29일(금) - 숙대 연수원에서

제 1,2 권사회 26일(화) -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에바다부 3월 1일(토) 서울교회에서

제1,2 스테반회(회장: 양춘경, 김규태 집사) 연합 수련회가 2월 29일(금) 오후 7시 숙명여대 연수원에서 열린다. '헬퍼(Helper)로서의 리더십'을 주제로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선다.

부부동반으로 스테반 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제1, 2 권사회(회장: 이인선, 안분선 권사)는 2월 26일(화) 오전 10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로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와 할러 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전공한 홍인종 교수(정신리더십 아카데미 원장)가 서며 '상담자로서의 권사'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다. 권사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란다.

에바다부 수련회(부장: 최용걸 집사)가 3월 1일(토) 하루동안 우리교회당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를 주제로 열린다. 강사로는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지도)가 선다.

간호사관학교 · 해군사관학교 졸업감사 육군사관학교 · 공군사관학교 입학감사

- 우리교회가 맡아 -

우리교회는 군 선교를 통해 민족의 75%를 복음화 시키는 비전2020운동(위원장 이갑진 장로)의 일환으로 올해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신입생을 위한 세례식과 감사예배를 그리고 간



▲ 2005년 해군사관학교 59기 졸업감사예배에서

호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졸업감사예배를 각각 주관한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48기 졸업 및 파송예배가 우리교회 주관으로 2월 27일(수) 오후 5시 대전 간호사관학교 믿음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예배에서는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준비된 사람 바울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갑진 장로(비전2020위원장)

가 기도하고,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한 예배 후에는 졸업생도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제공하며 준비된 선물을 전달하여 졸업생들의 장도를 축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이종윤 목사는 예배 전에 간호사관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와 국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것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비전2020운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한다.

해군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는 3월 5일(수), 공군사관학교는 3월 26일(수)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는 아직 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헝가리 개혁교회

2008 성경의 해 기념 성경 발간 지원

헝가리 개혁교회가 2008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헝가리 내 소수민족, 피난민 집시들과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기 위하여

총회의 요청이 있어 세계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교회가 미화 7,500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사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완형 장로)는 2008년도 교사헌신예배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린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제2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

1월 20일(주일)부터 시작된 제 2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 수료자는 아래와 같으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는다. 아울러, 제3기 세미나는 4월에 개강하게 된다.

고정숙, 곽선자, 곽숙, 김경옥, 김숙자, 김종자, 김지은2, 김호순, 박화실, 이영희7, 전정숙1, 하영수, 허현숙 (이상 13명)

성경 필사를 마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8번째 성경 필사를 마치고

정정의 권사(7교구)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명기

8:3)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으로 언젠가부터 필사를 시작한 것이 날이 갈수록 삶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 작년엔 8번째 필사본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이, 이름, 자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신구약 66권의 말씀 안에서 산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새 힘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서도 직분에 합당한 삶

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임을 알려주셨고, 정독과 필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들려 주셨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읽고 또 읽을 때 말씀의 깊이를 찾게 되었고, 한 자 한 자를 쓰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 영생의 비밀을 맛보며 차고 넘치는 기쁨에 빠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젊은 날 일찍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깊고 오묘하신 말씀 안에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나, 나중 된 자의 축복으로 값이주실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언제나 어지러운 현실에 빠져서 영안이 흐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일꾼 양성-2008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친구의 생명을 품는 어린이



▲ 유아부

▼ 초등부



▲ 유치부

▼ 유년부



개회예배

사순절의 묵상

Reflections on Calvary

Rev. Joshua Cho(영어예배부 담당)

A hoarse voice cries out, Eloi, Eloi, lama sabachtani?

Can anyone plumb that wall of suffering?

When wrath pressed upon that cursed tree, weight suffocating his bludgeoned body, but even more the Father's rage, the hell I deserved, the price for my wage.

As I gaze the dark sky of Calvary, grateful tears welling up uncontrollably. Then, I consider my own contribution, my only response, disgusted revulsion.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But, even this awareness, sin refuses to bend.

Is there any hope left for a sinner like me?

Yes, the answer is still Jesus at Calvary!

My only hope, God's persistence with me, power flows down to kill idolatry.

Spirit versus flesh, I rip the entangled web,

No more bondage or shackles, redeemed by the thorns on his head!

사순절(Lent)

사순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졌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부터 시작되어 부활절 전날까지 46일 동안 계속된다. 이 기간 중에 주일이 여섯 번 있게 되는데, 이것을 빼면 40일이 된다. 여기에서 사순절(四旬節)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한편 해마다 달라지는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하는 법은 이와 같다. 춘분(양력 3월 21일 전후) 후 만월(滿月)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된다. 그러므로 금년은 3월 20일이 춘분이고, 그 후 첫 번째 음력 보름이 3월 22일이기 때문에 3월 23일이 부활절이 된다.

(편집부)

새가족부를 수료하

주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신선영 성도(1교구)



대치동 명문학원에서 유명강사의 명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8주간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듯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셨지만 말씀 앞에 서신 전도사님의 모습은 분명하고, 때로는 단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들던 말씀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롭게 밀려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었겠으며 듣지 못한 이 진리를 어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저에게 전해진 것에 감사했고, 이 크고 비밀한 진리들이 믿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새롭게 감격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진리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가족부 공부는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첫걸음이지만 8주 동안 전해진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제가 사는 동안 걸어가야 할 신앙여정의 시작이자 끝이라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납니다. 생명력 있는 저의 믿음도 이 말씀에 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자라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낯설고 서먹했던 교회생활을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이름으로 환대해 주신 교회와 오래된 지인들처럼 편안하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새가족부 모든 분들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래서 더욱 귀한 주님 때문에 제가 사는 세상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권소라, 박혜진 선생의 독창과 중창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새벽날개"의 3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청아하고 순결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며, 미래가 촉망되는 솔리스트들로 현재 한국예술통합학교에 재학 중이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수) 간호사관생도들에게 특강을 하고 졸업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28일(목) 복음신앙동지회, 기독교총회파송 이사 간담회를 각각 갖는다.

■ 이사: 김진달 집사, 조선영 집사 가정(7교구)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소만마을 부영@905-205
T. 031-970-0889

-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협의회:
2/28(목) 10시30분 서울믿음교회
- 박준호 성도(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2007 스위스 국제콩쿠르 입상으로 군 면제 받고 4주간의 기본교육을 필하기 위해 입대하였다.
- 득남: 김한성, 이은아 성도(2교구)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2.24) 모세선교회(3.2)
- 금주의 식사 : 김명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

3월8일(토) 오전 9시
스데반회 주관으로

우리교회 제1, 제2 스테반회 주관으로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실시한다.

겨우내 차량에 묻어 들어온 흙먼지와 염화칼슘으로 더러워진 지하주차장 바닥을 물로 닦아내며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게 된다.

스데반 회원과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복장은 간편복을 입고 오면 된다.



▲ 지하주차장 물청소 중인 스테반 회원들(2006년)

선교사 건강관리를 위해 연세의료원과 협약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노회	교회명	후원자	구좌(각)
전서노회	북면중앙교회	남현주	0.5
		이인숙	2
장금교회	장금교회	한정원	1
		김재근	2

(다음주 계속)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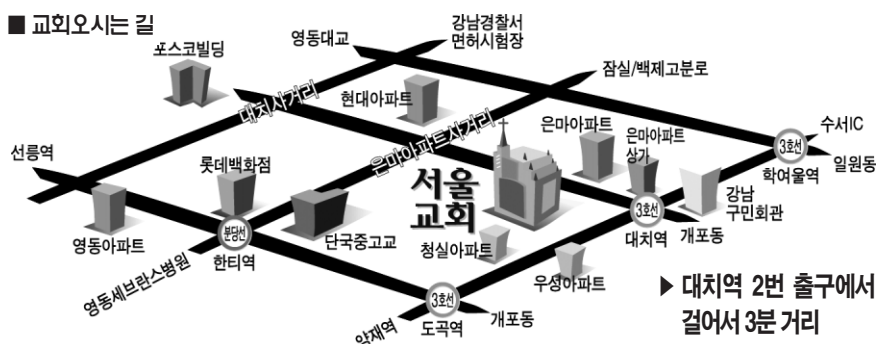
우리교회는 장례 시 과도한 조화의 사용을 절제하기 위하여 등록교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장례에 한하여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3.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새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가·민족에게 희망을 주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